



[노정 강대강 격화일로] 탈출구 안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공장 문 닫을 판 05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9.84 (+7.31)	코스닥	740.60 (+11.06)
금리 (미국 3년)	3.650 (-0.039)	환율 (원-달러)	1299.70 (-19.10) (1일)

### m-커버스토리

# 脫통신 바쁜 이통사 초거대 AI 선점경쟁

## 미래 먹거리는 AI

5G 서비스 보편화로 정체가 통신사업 융합 신사업 승부

SKT 'AI컴퍼니' 도약 방점 KT 'AI 디지코' 기업 변신 LGU+ AI브랜드 익시 출시

이상 성장한 4500억 달러(약 608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사들은 최근 초거대 AI를 시장에 속속 출시하고 있다. 초거대 AI는 딥러닝 기법을 쓰는 인공지능경망 중에서도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무수히 많은 AI를 가리킨다. 이통3사는 초거대 AI를 핵심 서비스에 접목시키며 서비스의 경쟁력을 쑥 끌어올리고 있다.

### ◆에이닷 킬러 서비스

유영상 SKT 대표는 AI 컴퍼니 비전을 SKT만의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 5대 사업군을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어비즈(Core Biz.)를 AI로 재정의하고 ▲AI 서비스로 고객 관계를 혁신하며 ▲AIX(AI+디지털전환)로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공개했다.

SKT는 우선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MNO'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품 탐색부터 가입, 이용까지 전 과정을 막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IPTV·채널·T커머스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자산을 통합할 뿐 아니라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업 자체를 고객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AI 엔터프라이즈'로 재정의해 나갈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철도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열차로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뉴스1

# 파월 발언에 韓 금리 3.5% 마무리 기대

美 기준금리 속도조절 시사 내년까지 인상은 이어질 듯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 기준금리가 3.5% 안팎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품 파월 미국 Fed 의장은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다. 앞서 미국 Fed는 올해 0.25%이던

기준금리를 3월 0.5%p, 5월 1%p로 각각 0.25%p, 0.5%p인상한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 0.75%p 인상해 4%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로 전환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경제위기 속 '선택과 집중'... 투자·전략通 전진배치

SK그룹 조직개편·인사단행

SK그룹이 2023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1일 단행했다. SK그룹은 내년까지 이어질 대내외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및 전략 전문가를 계열사 수장으로 전진배치하고 기존 원로 임

원들은 지주사로 집결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4면> SK그룹내 최고 의사 협의기구인 SK수펙스협의회는 조대식 의장이 4년 임했다. 사장단 인사에는 박성하 SK C&C 사장이 SK스퀘어 신임대표로 선임됐다. 윤풍영 SK스퀘어 최고투자 책임

자는 SK C&C 대표로 옮겼다. 박 대표와 윤 대표는 하이닉스 인수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체제를 유지한다. 유 CEO는 SK브로드밴드 대표도 겸직한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 729만 중소기업은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개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환영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 소속 운송거부자들은 조속히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섰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은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품 납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가 모인 단체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불법이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 국가 경제를 불모로 삼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2022. 12. 2.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 김기문

- |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배주웅 |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동우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
| 벤처기업협회 회장 강삼권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최봉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찬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분희  | 이노비즈협회 회장 임병훈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석용찬 |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원제철       |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현주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   |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석 |